

회원의 의무 이행에

會務수행에 필수적



실무진의 입장에서

사무부장 高 聖 兒

병진년을 바로 눈 앞에 두고 남은 한장의 달력을 보면서 세월의 빠름을 새삼느끼게 한다.

그간 회원에 관한 업무를 맡아온지도 어느덧 5년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 같다. 회원의 움직임을 보아오면서 무언가 회원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말들이 많은 것 같으면서도 막상 지면을 대하고 보니 주춤해지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그간 직접, 간접으로 회원들과 접촉해 본 결과 너무도 우리의 단체(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특히 의무(회원등록)를 이행치 않은 회원일수록 더욱더 모르고 있는 경향이 많을 뿐만 아니라 협회에 대하여 비협조적이면서도 많은 불평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의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으므로 인하여 땅장 나에게 오는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을 추구하고 그러한 혜택이 보이지 않는다하여 협회를 비난하고 있는 많은 회원들을 보아왔다. 반면에 내년 의무를 다한 회원일수록 많은 관심과 강한 애착심을 갖고 협회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한 협회의 활동을 주시

하고 때에 따라서는 조언과 이해를 해주고 있다는 점에 차이를 두고 있다.

단체란 항상 개개인이 할 수 없는 커다란 목적을 향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회원 각자의 머리에 새겨주었으면 한다. 회원의 권익옹호 및 복지를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정부와의 투쟁을 하고 있다는 것 또한 명시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 예를 들면 김영자간호원 주사 사건,故주현옥 간호원 사신, 대정부 활동등등 모두가 단체의 힘에 의하여 이루어진 커다란 우리의 권익옹호가 아니겠는가. 협회란 항상 나의 대변자이며 내가 소속된 단체란 점을 명시하고 소속된 단체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 주기를 바라고 싶다.

협회에 대한 의무란 매년 회원등록을 함으로서 나의 현위치를 협회에 알리는 점이다. 또한 협회는 회원의 동태를 파악하므로서만이 회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모든 계획을 수행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다.

가까이에서 있는 회원보다도 멀리 해외에서 취업하고 있는 회원들이 협회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협회의 필요성을 더욱더 절감하고 있는 서신을 대할때 협회의 힘이 그들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 한다.

끝으로 회원에게 바라고 싶은 것은

1. 내가 참여할 수 있는 우리의 단체를 가졌다 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한다.

2. 우리의 단체에 대한 의무를 다하므로서 강한 단체를 만들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주기를 바라고 싶다.

3. 우리의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가져주기를 바라고 싶다.

특히 실무자로서 회원에게 부탁할 것은 회원 각자가 현 위치에서 이동 되었을 경우 반드시 인적사항증 특히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협회에 알려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싶다.

회원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면서 또한 올해 메듭지지 못한 일 내년에는 꼭 성취 하시기를 기원한다.